

이화동창회보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 OF SO. CA NEWSLETTER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 2014년 11월

발행 장계원 / 편집 김영강

회장 인사말

사랑하는 이화여대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계원(도서 76)



동창회 회장직을 맡은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창회는 올해 총장배 골프토너먼트, 동문합창
단 정기연주회, 추석맞이 이화한마당잔치, 샌디에이고
일일관광,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회보발송 등
여러 행사를 가졌습니다. 동창회 산하 여러 소그룹들
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참석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동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주신 임원님들과
동창회를 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동문들이 동창회와 모교와 소통하며 가까워
질 수 있도록 E-Mail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남가주지회의 회칙도 개정하였습니다. 후배
들이 일할 때 오래도록 기준이 되는 회칙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 해주신 회칙개정위원
회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동창회주소록을
만드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소록은 연말파티
에서 나누어드릴 예정입니다. 광고와 후원으로 도와
주시기를 동문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2월 14일에 있을 송년파티에도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게 만나서 오랫동안 기억될 즐거운 시
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동창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렵고 힘들 때
도 많았지만 늘 앞드려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모든 동문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
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년 파티 및 정기총회

이번 송년파티는 정기총회와 각 부서별 장기자랑과 푸짐한 선물 등으로 올 한 해 지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잊으실 수 있는 흥겨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동문께 주소록과 동창수첩을 드립니다. 엘에이, 밸리 등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참석여부를 동창회로 알려주세요.

날짜 : 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Los Coyotes Country Club, Club House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714) 994-7788

회비 : \$70 (부부동반 \$130)

문의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장계원 (714-496-6621) 회장 또는 정현숙 (213) 507-2354 총무에게 연락 주십시오.

Los Angeles County 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버스편이 제공됩니다. (\$10)

밸리지역: 갤러리아 마켓, 글렌데일 지역: 서울마켓, LA 지역: 만민교회

장소와 시간을 전화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W.U.A.A 동창회 주소안내

P.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

E-mail: ewha.alum.sc@gmail.com

본교 소식

제14대 김선옥 총장 이임 및
제15대 최경희 총장 취임



이임사를 하는 김선옥 총장



취임사를 하는 최경희 총장

본교 제14대 김선옥 총장과 제15대 최경희 총장의 이·취임식이 7월 29일(화·오전 10시) 김영의홀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준영 회장(성균관대 총장), 서울대 성낙인 총장, 연세대 정갑영 총장, 고려대 김병철 총장 등 주요 대학 총장과 유승희·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병주·박운옥(새누리당) 동문 국회의원 등 외빈을 비롯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현정은 이화학당 이사(현대그룹 회장), 장상·신인령·이배용 전 임 총장 등 교직원과 동창, 주한 외교사절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최고 여성사학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김선옥 총장은 이임사를 통해 “이화의 역사가 처음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대학이라는 상아탑의 안온한 울타리를 넘어, 겨레와 민족을 위해, 나아가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해,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참여하는 이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4년 동안의 모색과 실천 과정을 통해 점차 구체화되어 이제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라는 비전으로 수립되었다”고 4년 임기를 마무리 짓는 소회를 밝혔다.

김선옥 총장은 그동안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를 비전으로 학부 교육 혁신, 연구·산학역량 강화, 국제화, 사회적 책무 강화, 기반시스템 선진화, 식정보화·네트워킹의 6대 핵심전략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김선옥 총장에게 장명수 이사장의 공헌패 전달과 학생 대표 성희연 총학생회장의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최경희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화인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이화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때”라며 “세계 최고를 향한 이화의 도전과 혁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장차 이화 200주년을 바라보는 ‘혁신 이화(Innovation Ewha)’의 가치를 높이 올리겠다”고 밝히며 ‘혁신 이화’의 구체적 전략으로 미래 지향적 교육과 연구 혁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이화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전폭적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재배치, 학생, 교직원, 동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이화공동체 네트워크 ‘이화 드림 앤 어치브먼트(이화 DNA)’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 4년간 이화여대를 이끌게 된 제15대 최경희(崔京姬·52) 총장의 임명장 수여와 취임 선서가 진행됐다.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 최경희 총장에게 임명장 및 ‘이화 열쇠’를 수여했고, 최경희 총장은 ‘세계 최고를 향한 이화의 도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취임 선서를 했다.



장명수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김선옥 전총장, 최경희 총장

동창회 소식

임원회



이번 회기에는 모두 여섯 번의 임원회가 열렸다. 4월 9일(장계원 회장택)에는 제11회 총장배 골프대회 결산 보고와 스폰서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편지 발송. 4월 동창회보 발송. 5월 8일(용궁식당)에는 제10회 이화여대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공연 준비. 6월 28일, 7월 24일, 8월 19(7th 카페)일에는 9월에 있을 선배님과 같이하는 추석맞이잔치를 위한 세부적인 준비, 9월 18일(김주경 이사장택)에는 추석맞이 잔치의 결산 보고와 샌디에이고 일일 관광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10월 말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12월의 송년 파티와 정기총회에 관하여 의논했다. 매년 15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사회

장계원 회장 2015년 연임

10월 24일 금요일 11시 30분 LA 소재 용수산 식당에서 2014년 하반기 이사회(이사장/김주경 관현 77)가 열렸다. 20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상반기에 진행된 행사 보고와 앞으로 있을 행사에 관한 의논(임원회 기사 참조), 그리고 동창회 회계 보고가 있었으며 본교 동창회 회칙에 준해서 엄밀히 검토된 본 남가주동창회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5년 동창회 회장 선임에는 현 장계원 회장이 만장일치로 연임되었다. 기타 사항으로는 새 주소록 발간비용을 위해서 많은 후원을 부탁하는 회장의 발언이 있었다.

골프부

골프부는 7월 14일과 9월 4일에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Buena Park Los Coyotes Country Club 에서 골프대회를가졌다. 수상자는 7월 4일: Champion 이승자, Gross 장민경, Net Lynn Kim, Longest 남궁봉일, Closest에 박영두 동문. 9월 4일: Champion Lynn Kim, Gross 1등 서희경, Gross 2등 배연정, Gross 3등 장민경, Net 1등 최애리, Net 2등 장계원, Net 3등 김주경 동문. 다음골프대회는12월4일에있을예정이다.
문의: 장민경(불문76) 회장 714-310-3511

제 10회 이화여대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공연



제 10회 남가주동문합창단(단장 장경해/ 피아노 75) 정기연주회가 2014년 5월 18일 오후 7시, LA 소재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지휘는 김영숙(성악과 92) 동문, 반주는 주희정 (피아노 08) 동문이 맡았으며, 30명의 단원들이 참여했다. 피아노 외에도 오르간과 플룻, 바이올린도 곁들여져 모두 열한 곡의 노래가 연주되었다. 독창에 안정화(성악 84), 이중창에 구은정(성악 98)과 김종숙(성악 2000), 바이올린 독주에 윤승경 (바이올린 99)이 특별 출연했으며, 어린 이합창단이 찬조 출연하여 뮤지컬을 선보였다. 또한 김영교(영문 63) 동문, 장/정효정(영문 68) 동문이 쓴 시로 작곡된 “아침 고백”과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이 초연되었다. 마지막으로 꽃밭에서와 교가를 다같이 부르며 연주회에 참석한 600여 명의 친지 동문들은 남가주동문합창단에 큰 박수를 보냈다.

한가위 대잔치



남가주동창회는 9월 9일 화요일, 추석맞이 모임을 LA County Museum 에서 가졌다. 10시 30분에 집합하여 11시부터 관람을 시작했으며 모두 55명이 참가했고 이중 60년 이전에 졸업한 동문은 15명이었다. 이 행사는 후배들이 대선배님들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매년 거행되고 있다. 이번 모임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조선왕조 오백년 유물전을 관람하기 위함이었으며, 한국인 큐레이터의 자세한 설명으로 유물 하나하나에 대하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1시 30분에 관람을 끝낸 후에는 근처에 있는 Marie Callender's Restaurant 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우애를 다지고 친교를 나누었다.

샌디에이고 일일 크루즈 여행



9월 20일, 합창부가 주최하고 동창회가 후원한 일일 크루즈 여행이 샌디에이고에서 있었다. 이번 관광 여행에는 48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엘이이와 오렌지카운티에 살고 있는 동문들이 각기 두 팀을 이루어 아침 8시 경에 Buena Park 소재 파인힐 식당 앞에서 합류하여 샌디에이고로 출발했다. 아침 식사로는 만두와 찜빵을 먹었고, 점심식사는 연주자들의 생음악을 들으며 샌디에이고의 Mexican 식당에서, 그리고 파인힐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해산했다. 멕시코어로 "보석"이라는 라구나 비치 버스를 버스 안에서 바라보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Old Town 관광, 아름다운 경관 코로나도 섬의 델코로나도 호텔 관광 등,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는 1시간 30분가량을 샌디에이고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크루즈 관광을 즐겼다. 이번 여행에 참석한 동문들은 이러한 모임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화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했다.

간호대학



6월 11일, 홍근표 교수님과 김수지 교수님이 남가주를 방문해 JJ Grand Hotel에서 31명의 동문이 모였다. 6월 21일 토요일에 있었던 남가주 간호대 연례 피크닉에는 현재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 활동과 간호학을 설립한 김수지 교수님이 참석해 근황을 알려주시고 많은 동문의 성원을 부탁했다. 이번 피크닉에는 30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했다. 다음 모임은 2015년 1월 17일에 있을 예정이다.

문의: 김혜숙(간호 72) 회장 310-750-8955

합창부



5월 18일, 제 10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끝냈고, 5월 31일에는 JJ Grand Hotel에서 정기공연 뒤풀이를 가졌다. 10월 11일에는 JJ Grand Hotel에서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누었으며 10월 25일부터 연습을 시작했다. 금년 말까지는 11월 15일, 11월 29일, 12월 13일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주로 12월 14일에 있을 이대동창 송년 파티에서 부를 노래를 연습한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는 5월 26일에 있을 제 11회 정기연주회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모여 연습을 할 예정이다. 장소는 LA 소재, 동양선교교회, 지휘는 엄인용(성악 72) 동문, 반주에는 주희정(피아노 2008) 동문이 수고한다.

문의: 장경해(피아노 75) 단장 909-821-2477

O. C. 이대 배꽃모임



매월 한 번씩 모이고 있는 배꽃회에서는 7월에 이영애 선생님의 생신 축하 시간을 가졌으며, 8월에는 이대 교목님이셨던 조찬선 목사님께서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다. 현재 97세이신 목사님께서서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손수 운전을 하시고 오시어 동문들을 기쁘게 했고,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배꽃회 회원들을 격려해주셨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동문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며 봉사활동과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임영희(간호 68) 회장 949-387-1105

녹미회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Lee & Lee Gallery
에서 제 3회 녹미
전이 열렸다.

20여 명의 회원들
이 출품을 했으며,
그중 90 학번 이후
의 동문들이 9명
이었다.

9월 27일 오프닝
리셉션에는 약 200
여 명의 동문 친지
들이 참석을 해주
어 성황을 이루었
다. 참여 작가는
초대작가 고
김순련(서양 49),
황순정(서양 59),
서강일(서양 61),
현군숙(서양 65),

성기순(섬예 69), 김진송(생미 63), 김 숙(조소 71),
전인경(생미 73), 오명애(장미 74), 사베리아 리(조소
75), 최용순(서양 77), 김경희(섬예 78), 정보경(생미
80), 김현중(동양 85), 홍현애(조소 86), 남궁경(서양
90), 나영미(조소 90), 전선영(조소 90), 오주연(조소
90), 채현주(동양 90), 남궁 경(서양 90), 최고운(조소
2000) 등이다.

7월 14일에는 회원 10여 명이 LA County Museum
에서 전시되고 있는 조선왕조 유물전을 관람했다.
덧붙여 고향로부터 칸딘스키 전도 볼 수 있었다.

문의: 정보경(생미 80) 회장 562-260-4899

선교부

7월 16일, 15명의 동문들이 올림픽 양로원을 방문하
여 합창으로 노인들을 위로하며 봉사했다. 선교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이수훈(화학 59) 목사님의 말씀
과 인도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고 있는 동문 선교사 130여 명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모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정성이나마 캐나다, 모로코, 캄보디아 등, 각지
에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다.

문의: 조남화 (간호 63) 부장 310-838-6606

2014년 샌프란시스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본 남가주지회에서 34명 참석



2014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샌프란시스코지회 주최로 San
Francisco Hyatt Regency Airport에서 열렸다. 캐나
다 토론토지회를 비롯하여 각 미주지역에서 1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고, 본 남가주지회에서는 34
명이 참석하여 작년에 이어 또다시 최다수의 기록
을 세웠다. 첫 날은 오랜만에 다시 만난 선후배들
이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
졌다. 둘째 날은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일반 동
문들은 와인으로 유명한 나파밸리 와이너리를 방
문했고, 저녁에 열린 동창회 주최 만찬에는 많은
동문들이 할로윈 데이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할

원 복장으로 참석했으며, 각 지회 동창들의 공연
이 있었다. 또한 본교의 최경희 15대 신임총장, 조
종남 총동창회장, 이순남 의료원장, 오진경 대외협
력처장과 이화국제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이 함께하
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최경희 신임총장은 도전과
혁신의 비전 아래 “이화 DNA(Dream and Achievement)”
네트워크 구축과 Innovation Ewha 를 선포하는
글로벌 이화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미주지역 동문
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셋째 날은 각 지회 사업보
고, 이사회 안건 처리, 회계 보고가 있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시티투어, 저녁엔 총장 주최 만찬이
있었다. 만찬에는 셰론집머만 이화국제재단 이사
장,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을 비롯하여 여러 내
빈들이 참석했고, 또한 탤런트쇼에서는 2015년 총
회 개최지인 아틀란타지회가 1등 상을 받았다. 마
지막 날에는 샌프란시스코지회 김진연 전도사 (정
외 93)의 사회로 주일예배, 그리고 총장과 대하
시간을 가졌고, 다음 총회 개최지인 아틀란타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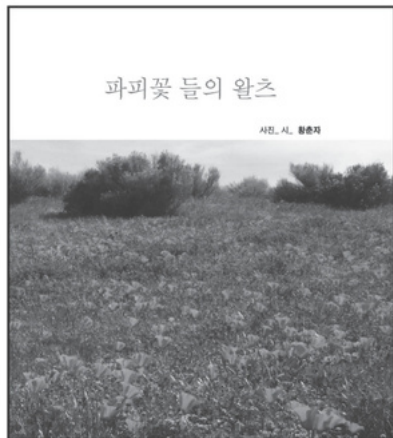
동창근황

황/이춘자 (약학 62))



이 동창이 2014년 7월 15일, 시집 『파피꽃들의 왈츠』를 펴냈다. 사진작가인 자신의 천연색 사진도 곁들여져 있는 이 시집은 4부작으로 모두 45편의 시가 수록되었다. 정영희 목사는 추천사에서 “풍경과 시

인의 영혼이 만나 희망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작품 속에는 온갖 인생의 곱삭은 맛이 풍겨난다.”고 썼다. 또한 이 동창은 가정폭력 여성보호소인 “푸른 초장의 집”을 2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책의 제목을 『파피꽃들의 왈츠』라고 한 것도 “푸른 초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자매님들이 파피꽃처럼 환하게 웃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이 동창은 Art Association이 주최하는 사진 콘테스트에서 San Clement Art Contest 최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출판기념회는 7월 26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유머감각이 뛰어난 이 동창의 장녀가 유창한 한국어로 사회를 맡아 100여 명의 축하객들을 기쁘게 했다.

문/정금숙 A (국문 63)



정 동창이 2014년 제 16회 해외문학상 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5월 28일, 로텍스 호텔에서 있었다. 수상작은 “비버데일 꽃 속에 숨진 별”로, 사랑의 가치를 나무랄 데 없는 시적 표현으로 별

과 꽃의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써 그 주제가 잘 성찰돼 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6월 29일에는 재미시인협회가 주최하는 제 3회 재미신인상을 수상하여 올해 두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시”로 등단한 정 동창은 『추억이 서성이는 마을』 『나의 바퀴도 흔들렸다』 『황홀한 관계 속에서』 『머릿살 다이어트』 등 4권의 시집과 『서성이는 섬들』 등 3권의 동인지를 펴냈다. 해외 안데스문학상, 한국펜클럽 미주지역 펜문학상, 해외문학 시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재미시인협회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김영교 (영문 63)



김영교 시인이 시집 『흔적』으로 2014년 미주한국문인협회가 수여하는 제 20회 미주문학상을 수상하여 9월 12일 시상식을 가졌다. 심사를 맡은 정용진, 배정웅 시인은 “김영교 시인의 『흔적』은 언어의 절제

가 강하고 독자가 고뇌하면서 다음 연을 상상할 마음의 여백을 남겨 둔 수작이라며 짧은 언어의 행간 속에 여러 해석이 가능한 의미의 광석들을 늘어놓았다”고 평했다. 저서로는 『우슬초 찬가』 『새롭게 떠나는 작은새』, 등 7권의 시집이 있고, 『꽃 구경』 등 3권의 수필집이 있다. 현재 재미시인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산문학상, 해외문학상, 이화문학상, 노산문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6월 18일에는 미주한국문인협회 후원으로 『흔적』의 북 사인회가 한미교육원에서 열려 김 동문의 문학관을 들었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김인자 (약학 63)



김 동창의 칼럼 수상집 『노마드에 부는 바람』 북 사인회가 지난 3월 27일, 한미교육원에서 열렸다. 김 동문의 문학관을 들었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된 북 사인회는 미주한국문인협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김 동창은 1994년 미주문학세계 수필, 1995년 미주크리스천문학에 시가 당선되었고, 2002년에 시집 『심안으로 보는 길』을 출간했다. 1995년 월간 문학세계 신인상, 미국 도서관시인협회 우수상, 편집자상을 수상했으며 미주한국문인협회 부회장과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이영강 (국문 66)



이 동창이 장편소설 『침묵의 메아리』로 2014년 제 4회 고원문학상을 수상했다. 심사를 맡은 정호승 시인과 김종희 평론가는 “김영강의 장편소설 『침묵의 메아리』는 세상 살이와 인간관계의 엄중한 이치, 눈

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질서와 그것을 통어하는 힘에 경의를 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한 것은 소수의 등장인물 사이에 얽힌 애증의 그림자들을 표면 위로 밀어올린 구성력과 문장력이 돋보이며, 이야기를 꾸미는 일상적 차원으로부터 인생사의 웅숭깊은 질곡과 그것의 숨은 의미를 무리 없이 잘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측면은 미주문단에서도 쉽지 않은 사례이다.”라고 평했다.

현재 본 동창회보 편집장직을 맡고 있다.

이/김윤자 (간호 67)



김 동창이 항암치료의 고통을 딛고 2014년, 70세의 나이에 HIS University 에서 교육학(상담학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방암, 폐염증과 투병해야하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상처를 부여안고

2011년 기독교상담학 석사과정을 시작하여 결국은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것이다. 아버지가 목사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 동창은 1996년에 LA 소재 영락교회에서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하고, LA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팀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함과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교회를 순방하면서 간증과 소그룹 일대일제자양육 세미나를 진행하여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특별히 일대일제자양육 성경 공부에 상담학적 기술을 접목시켜 큰 결실을 얻고 있다.

김화진 (사생 74)



김 동창이 2014년 미주중앙일보 문예공모에서 수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빈터>는 6년 전에 작별한 남편의 묘지를 찾아 지나온 날들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만날 날의 희망을 노래한 글이다.

수상소감에서 김 동창은 “제 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고, 쓰는 일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번 수상이 앞으로 남은 제 시간 속에서 글 쓰기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2000년 한국일보 문예공모 생활수기로 등단한 김 동창은 2007년 재미수필가협회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본국 “현대수필” 등단작가로 수필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현재 재미수필가협회 회원으로 회계직을 맡고 있다.

이/임정아 (가정 78)



임 동창이 2014년 국제펜문학 한국본부 해외작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인을 대상으로 업적이 인정되는 작가에게 국제펜문학 한국본부가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이 제 2회째로, 미주에서 수필가로서 꾸준히 작품활동을

임 동창이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었다. 임 동창은 미주의 양대 신문인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오랜 동안 칼럼을 써 왔고 현재는 중앙일보에 “이 아침이”를 집필 중이다. 저서로는 『낮선 숲을 지나며』 『선물』 『자카란타 꽃잎이 날리는 날』 등, 세 권의 수필집이 있고 해외한국수필문학상, 미주펜문학상, 조경희문학상 해외작가상을 수상했다.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과 한국일보 문예공모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박/성대현 (장식 63), 성기순 (섬예 69),
박/김경희 (섬예 78), 이제인/김민자(피아노 78)



박/성대현



성기순



박/김경희



이제인/김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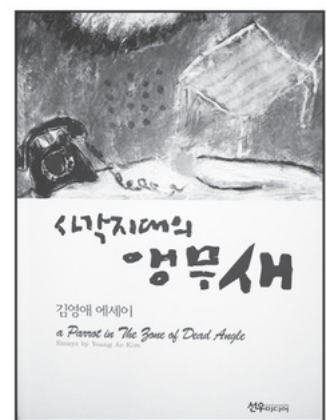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한국문화원에서 거행된 제 6회 “한국의 얼과 멋” 민화전시회에 위의 네 동문이 작품을 출품했다. 이 전시회는 2001년부터 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미주한국민화협회(회장 성기순)가 주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16명, 미국 11명의 작가들이 참여했고 한국민화협회 신동식 회장이 작품을 출품하고, 전시회에도 참석하여 이 자리를 더 빛나게 해주었다. 특히 성기순 동문은 6월 24일, 한국문화원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는 미국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역사와 문화세미나”에서 민화 Workshop 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6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민자 동문은 한국민화협회주최 공모전에서 2012, 2013, 2014년, 3회 연속으로 특선하여 추천작가로 등극했다.

김영애 (간호 75)



김 동창이 2012년에 펴낸 제 1 수필집 『한 생각 물결되어 출렁일 때』에 이어 2014년 7월에는 제 2 수필집 『사각지대의 앵무새』를 출간했다. 이 수필집에는 김진희 화백의 그림이 천연색으로 곁들여져 있으며

4부작으로 모두 4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정목일 수필가는 추천사에서 “김영애 수필가는 우리 수필 문단에 개성과 독자성을 지닌 본격 수필가로서 자신만의 세상 보기와 인생 통찰력을 드러내고 있으며, 깊은 사유와 철학이 있는 삶의 발견과 인생적인 깨달음을 피워내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이 수필집으로 김 동창은 2014년 제 12회 미주펜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부회장,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미주연합회 회원으로 크리스천문인협회 소설부문상, 문예운동, 수필시대 신인상, 서울문학 제정 오늘의 작가상, 무원문학상, 경희 해외동포문학상, 수필세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4년 회비납부와 후원금 현황

(2014년4월1일-11월15일)

동창회비 추가

민정문 (사학 64)
박경숙 (가정 60)
박신화 (기독 70)
박희진 (식영 88)
서인희 (사회사업)
서자경 (사회 86)
엄선임 (교육심리 69)
원미나 (사회생활)
이혜진 (건강교육 81)
함지윤 (간호 96)
황송자 (교육 79)

이사회비 추가

고복주 (생물 70)
안성옥 (가정 61)
정태숙 (교육 61)

임원활동 후원금

고복주 (생물 70)
고은주 (영문 61)
김봉덕 (체육 60)
김정순 (간호 75)
김주경 (관현악 77)
동양순 (영문 44)
박화자 (간호 66)
송은섭 (정외 57)
송정현 (교육 57)
신명재 (약학 74)
안정희 (건교 74)
안성옥 (가정 61)
원미나 (사회생활)
윤수현 (조소 68)
장경해 (피아노 75)
장계원 (도서관 76)
정태숙 (교육 61)

합창공연 후원금

고복주 (생물 70)
고은주 (영문 61)
김강주 (사회 75)
김민자 (피아노 78)
김봉덕 (체육 60)
김여옥 (약대 67)
김영강 (국문 66)
김영교 (영문 63)
김영미 (의대 67)
김영순 (간호 73)
김원숙 (작곡 69)
김정순 (간호 75)
김주경 (관현 77)
김준희 (영문 60)
김진현 (체육 49)
김천영 (영어 64)
민영숙 (간호 73)
박만해 (사회 62)
박미경 (정외 97)
박순아 (법학 75)
박화자 (간호 66)
송은섭 (정외 57)
송정현 (교육 57)
신영숙 (의대 70)
안성옥 (가정 61)
염정자 (영문 60)
오창옥 (외국어교육 73)
윤수현 (조소 68)
윤영애 (사회사업 59)
이정은 (교육 63)
이근재 (교육 58)
이상옥 (교육 67)
이송자 (기독교 68)
이영애 (성악 대학원 59)
이정자 (사회학 62)
이천효 (정외 69)
이혜진 (건강교육 82)
이혜숙 (영양학 63)
장경해 (피아노 75)
장계원 (도서 76)
정효정 (영문 68)
조경배 (성악 72)
조숙자 (성악 65)
조영희 (시청각교육 69)
조운재 (교육 61)
조정자 (기독 65)
추경아 (영문 89)
최혜령 (건교 81)
한영숙 (영문 60)
한영희 (무용 68)
허영자 (국문 65)

남가주동창회 새 주소록 준비

남가주동창회는 새 주소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변경된 동문은 동창회
또는 회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광고 및 후원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창회 : E.W.U.A.A.
P. 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
이메일: ewha.alum.sc@gmail.com
장계원 회장 : 714-496-6621 / kaygiun@yahoo.com

아직 등록을 안 한 동문이 주위에 있을 경우,
적극 권장해주시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2014년 남가주동창회 장학금

- * 대상: 고등학교 12학년 - 대학 4학년
 - * 학업 성적증명서
 - * 신청서와 에세이
 - *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 회원의 자녀.
 - * 마감 2014년 11월 25일
- 문의: 장계원 (714-496-6621) 회장

본 동창회보 특별상 수상

5월 30일, 본교 창립 128주년 기념 동창의 날에 거
행된 본국 회보 경연대회에서 본 남가주동창회보가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8년, 2012년에 이어 올
해가 세 번째 수상이다. 본 동창회보는 일 년에 두
번, 4월과 11월에 발간되어 남가주 전역에 거주하는
1400여 동창에게 발송되고 있다.

회비 및 후원금 납부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회계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Payable to : EWUAA
P.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
회계: 황혜원(무용 85) Tel(310) 408-5244
e-mail : haewon22@gmail.com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P.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